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4. 11. 27.

자료문의 : 대검 형사선임연구관실

전화번호 : 02-3480-3425

주책임자 : 형사선임연구관

### 제목

## '24년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4년 10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 (※ 상세 내용 별첨)

① 대부금 5,529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 사건을 송치받아, 압수수색, 영업장부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3년간 59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이율 초과이자 33억원 상당을 수취한 불법 대부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주요 가담자 5명을 직접 구속한 뒤 총 15명을 기소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한 사례 [제천시청]

② 지역의 전세사기 사건을 모두 송치받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임대관리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강동부동산 이용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 사기, 전세대출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나는 전세사기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권리관계 및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숨어 있는 주범이나 공범들까지 찾아내며 여죄까지 이송받아 추가로 기소하는 등 민생 침해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한 사례 [부산지검]

③ 검사가 재배당받은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과거 자신이 경찰에 재수사요청까지 하여 실체를 밝히려다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과 관련 사건임을 기억하여, 두 사건을 비교하며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인들을 수 차례 조사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밝힌 후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암장될 뻔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 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 [강릉지청]

④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공사대금 등 2억 3,500만원 사기 사건에 대해, 재무제표상 사업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 있음에 착안하여 계좌 추적 및 대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분식 회계 후 21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 기소한 사례 [마산지청]

⑤ [광주지검 손성훈 검사] 불과 2개월 동안 재배당받은 장기미제 대부분을 신속히 처리하고 잦은 이송 등으로 전체 수사기간이 지연된 사건도 실체를 밝혀 종국처분하는 한편,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의 사건을 송치의견과 달리 처분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사건도 충실히 수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다함

⑥ [대전지검 김지훈 검사]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누적된 장기미제 상당수를 충실히 처리하고, 수년간 가스라이팅하며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역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한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여 가혹행위 및 무고의 전모를 밝히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함

⑦ [천안지청 이지은 검사] 사건의 실제 규명을 위해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며 적극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여 장기미제를 상당수 처리하고, 사건을 면밀히 살펴 다수의 사건을 송치의견과 달리 처분하는 등 충실히 사건처리에 힘씀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1	제천지청	<p><b>【직접수사, 정성처리】</b> 대부금 5,529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 사건을 송치받아, 압수수색, 영업장부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3년간 59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이율 초과이자 33억원 상당을 수취한 불법 대부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주요 가담자 5명을 직접 구속한 뒤 총 15명을 기소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들) 공모하여 '21. 6. ~ '24. 7. 대부업 등록 없이 총 7,570회에 걸쳐 합계 59억 2,643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 7,594만원 수취 <b>[대부업법위반]</b></li> <li>○ (피고인 A) 상환기간 연장 또는 이자 면제 조건으로 채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 수집 <b>[전자금융거래법위반]</b></li> <li>○ (피고인 B) 채무상환을 연체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 <b>[채권추심법위반]</b></li> </ul>
	김준선(37)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 5명이 대부금 5,529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건을 송치받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들 주거지 압수수색, 영업장부 분석 등 면밀히 보완 수사한 결과,</li> <li>- 약 3년간 지역 선후배들을 조직원으로 가담시키고 별도의 하부조직까지 두어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무등록 대부조직을 운영하며 합계 약 59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이율 초과 이자 약 33억 원을 수수한 사안의 실체를 규명</li> </ul> </li> <li>○ 범행에 가담한 공범 9명을 새로 입건하고, 주요 가담자 5명을 직접 구속하여 총 15명을 기소(구속 5명, 불구속 10명)하고, 범무법인 보관금 4억원 및 차량 등에 대해 범죄수익 추정 보전 조치를 함으로써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 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유재덕(변9)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2	부산지검 형사제1부	<p><b>【민생침해사범 엄단】</b> 지역의 전세사기 사건을 모두 송치받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임대관리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깡통부동산 이용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 사기, 전세대출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나는 전세사기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권리관계 및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숨어있는 주범이나 공범들까지 찾아내며 여죄까지 이송받아 추가로 기소하는 등 민생침해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p>① 임대관리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전국청 이송 9건 추가 병합 기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 A~F는 임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21.3.~'23.7. 전국 9개 오피스텔 115개 호실에 대해 매월 손실액이 누적되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증금 합계 25억 상당을 조직적으로 편취 [사기, 범죄집단 조직]</li> </ul> <p>② 깡통부동산 이용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 사범 4명 기소(3명 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 G는 브로커인 피고인 H를 통해 부동산 공급브로커인 피고인 I가 관리하는 '깡통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방식으로 피고인 J 명의로 취득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 사실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원=매매가액)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월세(보증금 1천만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문서위조]</li> <li>- '19.3. 피고인 J로 하여금 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 위조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담보가치를 풀려 대부업체로부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편취 [사기, 위조사문서행사]</li> </ul> </li> </ul> <p>③ 전세대출 사기사건 송치 후 배후 주범 2명 직인지, 기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 피고인 K는 총괄(부동산 물색 대출금 관리 등), 피고인 L은 명의 제공자 모집, 피고인 M은 임차인 명의 제공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아파트에 대해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억 6,000만원 편취 [사기]</li> </ul>
	김상균(34)	
	이주희(38) 김병채(46) 박영웅(변7)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p><b>선정 이유</b></p> <p>① 임대관리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전국청 이송 9건 추가 병합 기소</p> <p>○ 임대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하여 사기, 범죄집단으로 기소('24. 6.)한 이후,</p> <p>- 전국청에서 이송받은 총 9건에 대하여 피해금 25억원 상당 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등 전국적 규모의 다중피해 전세사기 사건을 꼼꼼한 사법통제와 경찰과 협력으로 범행구조를 확인하여 엄단한 사례</p> <p>※ 임대인에게는 낮은 보증금, 높은 월세 지급을 약정하고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 낮은 월세를 약정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지급할 월세 부담 등으로 매월 누적 손실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환해야 되는 보증금이나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액의 차임을 지급하기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시 높은 보증금을 받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던 구조를 밝혀냄</p> <p>② 강동부동산 이용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 사범 4명 기소(3명 인지)</p> <p>○ 조직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 가담사실을 묵비하는 피고인 1인의 범행으로 송치된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 사건에서,</p> <p>- 잔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강동부동산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담보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 3명을 검찰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출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힌 사례</p> <p>※ 구조적으로 공범들의 관여 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임을 확인하고, 동일 시기 부산 일대 유사 수법의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 및 범행에 이용된 계좌 등을 추적하여 공범들 밝혀냄</p> <p>③ 전세대출 사기사건 송치 후 배후 주범 2명 직인지, 기소</p> <p>○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된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고인 진술 없이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음을 확인 후 시정조치요구하여 송치받은 뒤,</p> <p>- 관련 기록 대출·분석 등 보완수사로 배후 주범 2명(총괄 및 명의 모집자)을 인지 후 전원 기소한 사례</p> <p>※ 자금 관리책, 모집책 등의 관여 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임을 확인하고, 보완수사하여 자칫 암장될 수도 있었던 거액의 전세대출금 사기의 전모를 밝혀냄</p>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강릉지청 형사부	<p><b>【정성처리, 민생침해사범 엄단】</b> 검사가 재배당받은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과거 자신이 경찰에 재수사요청까지 하여 실체를 밝히려다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과 관련 사건임을 기억하여, 두 사건을 비교하며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인들을 수 차례 조사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밝힌 후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암장될 뻔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 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p> <p><b>사안 개요</b></p> <p>○ '22. 5. ~ 8. 고소인에게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는 방식으로 안심시켜 추가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6억 7,400만원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p>
	문하경(37)	<p><b>선정 이유</b></p> <p>○ 피고인이 투자사기 피해자로서 킹크랩업자를 고소한 사건을 재배당받아 검토하던 검사가, 과거 경찰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까지 하여 실체를 밝히려다가 증거불충분으로 기록반환했던 사건과 관련 사건임을 기억해낸 후, 경찰에 종전 사건 기록을 대출받아 검토</p> <p>- 검사는 위 두 사건 사이에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두 사건 관계자들의 자금흐름을 통합하여 분석하고 킹크랩업자, 피고인, 고소인을 수 차례 조사한 결과,</p> <p>-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만 킹크랩업자에게 재투자되었고, 대부분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자금 및 채무변제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인의 사기 범죄를 입증</p>
	전인수(변9)	<p>○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려 종전 사건 종결 15개월 만에 이의신청을 받아 사건을 재기하고 보완수사하여 실체를 명확히 한 후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였음</p>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4	마산지청 형사제2부	<p><b>【정성처리, 조세포탈사범 엄단】</b>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공사대금 등 2억 3,500만원 사기 사건에 대해, 재무제표상 사업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 있음에 착안하여 계좌추적 및 대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분식회계 후 21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 기소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21.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26억 8,166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li> <li>○ '20. 8.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분식한 후 피해자 금융기관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21억 3,829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li> </ul>
	정지영(37)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고철대금 및 공사대금 2억 3,500만원 사기 사건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 검토 결과,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재무제표상 사업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정황을 확인하여, 피고인 및 사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패턴 양상이 분석되었고, 이를 토대로 2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확인</li> <li>- 이에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조사 및 대출자료 분석 결과,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분식회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냄</li> </ul> </li> <li>○ 불송치 사건을 만연히 처리하지 않고 적극적인 보완수사 및 세무서 등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한 후 기소함으로써 조세포탈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li> </ul>
	임영하(변9)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5	광주지검 형사제2부	<p><b>【형사부 본연의 임무 충실】</b> 불과 2개월 동안 재배당받은 장기미제 대부분을 신속히 처리하고 잦은 이송 등으로 전체 수사기간이 지연된 사건도 실체를 밝혀 종국처분하는 한편,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의 사건을 송치의견과 달리 처분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사건도 충실히 수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다함</p>
	김희주(35)	<p><b>선정 이유</b></p> <p>○ 광주지검 손성훈 검사는 공판부에서 형사부로 보직변경된 후 불과 2개월여의 기간 동안(9.2. ~ 10.31.) 배당일로부터 1년 초과된 사건 10여건을 포함한 재배당받은 장기미제 대부분을 처리하고, 새로 배당받은 사건들도 신속히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p>
	손성훈(변5)	<p>○ ① 기소중지, 이송 등이 반복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재배당받아 공범들의 처분 경과 등을 확인하여 기소하는 등 종국처분하고, ② 무고 사건을 재배당받아 사건관계인 13명을 조사하여 허위 진술서 작성 요구, 합의금 갈취 등 강요죄 및 공갈죄를 추가 인지하고, ③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10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하였음</p>
6	대전지검 형사3부	<p><b>【형사부 본연의 임무 충실】</b>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누적된 장기미제 상당수를 충실히 처리하고, 수년간 가스라이팅하며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역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한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여 가혹행위 및 무고의 전모를 밝히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함</p>
	허성규(36)	<p><b>선정 이유</b></p> <p>○ 대전지검 김지훈 검사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새로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누적된 장기미제 상당수를 처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관계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새롭게 사건을 조사하며 충실한 수사를 이어왔음</p>
	김지훈(41)	<p>○ 수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폭력과 가혹행위 피해를 입은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부족으로 대부분 불송치되고, 오히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실체를 밝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해자들의 무고 모의, 가해사실을 밝히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하였음</p>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7	천안지청 형사2부	<p><b>【형사부 본연의 임무 충실】</b> 사건의 실제 규명을 위해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며 적극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여 장기미제를 상당수 처리하고, 사건을 면밀히 살펴 다수의 사건을 송치의견과 달리 처분하는 등 충실히 사건처리에 힘씀</p> <p><b>선정 이유</b></p>
	김종필(35)	<p>○ 천안지청 이지은 검사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며 적극적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다수의 장기미제를 상당수 처리하였음</p>
	이지은(변9)	<p>○ 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추행한 사건을 송치받은 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모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무고 인지 후 직구속하고, ②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수사개시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다수 스토킹한 사실을 밝혀내 직접 잠정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③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22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불기소처분하는 등 충실히 수사함</p>